



헥터 ‘맑음’

15승 200이닝·타이거즈 첫 외국인 무사사구 완봉승
‘가을야구’ 1차전서도 7이닝 2실점 호투하며 MVP

KIA 외국인 선수 2017 기상도

포스트 시즌을 통해서 KIA의 2017 시즌 ‘외국인 선수’ 구성을 엿본다. KIA는 올 시즌 ‘빅리거’ 헥터 노에시와 프리미어 12 한국전 선발로 강한 인상을 남긴 지크 스프루일 그리고 ‘호랑이 3년 차’ 브렛 필로 외국인 군단을 구성했다. 세 선수의 기상도는 헥터 ‘맑음’, 지크 ‘비’, 필 ‘흐림’이다.

헥터는 KIA에서의 첫 시즌 에이스로 우뚝 섰다. 정규시즌 마지막 등판이었던 지난 2일 kt전에서 9이닝 완투승으로 15승과 200이닝을 동시에 찍었고, 타이거즈 외국인 사상 첫 무사사구 완봉승의 주인공이 되기도 했다. 그리고 5년 만에 맞이한 팀의 가을 잔치에서도 헥터는 주인공이었다. 두 개의 호수비 뒤 8회 뜬공을 놓친 김선빈 덕분이었다. 헥터는 지난 10일 잠실구장에서 열린 LG와의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에서 7이닝 5피안타 1볼넷 3탈삼진 2실점(1자책)의 호투로 포스트 시즌 승리투수 타이틀을 차지했다. 1차전 MVP로도 이름을 올렸다. 올 시즌 30경기에 나온 지크는 10승에

필 ‘구름 조금’

3년 연속 3할 등 성적에도 해결사 본능 약해져
“대권 위해 강한 용병 필요” 재계약 찬반 팽팽

는 성공했지만 5.27의 평균자책점으로 승보다 많은 패(13)를 기록했다. 특유의 매서운 강속구를 완벽하게 활용하지 못하면서 들쭉날쭉한 피칭으로 5회도 막지 못하고 물러난 경우도 7번에 이르는 등 외국인 선수다운 역할을 해주지 못했다. 필은 3년 연속 3할을 찍으면서 22개의 홈런과 함께 86타점을 찍었다. 10개의 도루도 기록하는 등 올 시즌에도 필의 재치 있는 플레이는 여전했다. 하지만 앞선 2년과 달리 기록을 보이면서 13개의 실책도 남겼다. 필의 공격적인 성향은 올 시즌 중요한 순간에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그러나 와일드카드 1차전에서 필이 반격에 나서 한국에서의 첫 포스트 시즌에서 환호했다. 김기태 감독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필은 1차전에서 2번 타순에 자리를 했다. 그리고 결과는 적중했다. 4회 두 번째 타석에서 선두타자로 나와 중전안타로 출루한 뒤 팀에 첫 득점을 만든 필은 6회에도 가장 먼저 타석에서 서 2루타를 때려냈다. 김주찬의 땅볼에 이어 나지완의 희생플라이로 홈에 들어오면서 5년 동안 염원했던 승리를 이끌었다. 시즌 성적과 와일드 카드 결정전 1차전 결과를 보더라도 헥터의 내년 시즌을 예상

지크 ‘비’

10승13패·평균자책점 5.27 들쭉날쭉 피칭
강속구 활용 못하고 ‘이닝 이터’ 임무 실패

할 수 있다. 1차전 MVP로 타이어 교환권을 부상으로 받은 헥터는 “KIA와 재계약을 하게 되면 내년 한국에서 차를 사서(타이어를) 쓰겠다”는 소감을 밝히며 내년 시즌 자신의 거취를 예고했다. 한국생활에 큰 만족감을 보이는 등 이미 구단과 교감은 이뤄진 상태. 상당한 몸값으로 노심조사 헥터의 올 시즌을 지켜봤던 KIA 입장에서 재계약을 놓고 망설임 이유가 없다. 지크는 성적으로 내년 시즌 답이 이미 나와있다. 하지만 필이 고민이다. 재계약 찬반 의견은 팽팽하다.

내년을 대권 도전의 시즌으로 찍어두었던 KIA는 올 시즌 포스트 시즌까지 경험하면서 동력을 얻게 됐다. 그만큼 강력한 외국인 타자가 필요하다는 게 재계약 반대 측의 의견이다. 경험 그리고 반등 요소가 있다는 점은 재계약을 고민하게 한다. 선수단 내부에서도 최고의 평가를 받는 선수인데다 무리한 장타욕심과 발목 무상으로 시즌 초반이 좋지 않았다는 점에서 ‘미워도 다시 한번’을 이야기하기도 한다. 정규시즌 이후 보너스로 주어질 특별한 무대에서 외국인 선수 구성을 놓고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하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김광수 “응원했더니 목이 다 아프네”

덕아웃 T 특·특

▲자신 있었는데=지난 10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1차전이 4-2 승리로 끝난 뒤, KIA 선수들은 승리의 환호성을 지르며 밝은 표정으로 경기장을 빠져나갔다. 하지만 4-0으로 앞선 8회 무사 2루에서 뜬 공을 놓친 유격수 김선빈은 홀로 어두운 표정으로 짐을 챙겨나갔다. 다행히 2실점으로 8회가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김선빈은 “자신 있었는데 마지막에 실수를 했다”며 미안한 표정으로 버스소 향했다. 그러나 김선빈은 앞선 수비에서는 두 차례 안타성 타구를 잡아내면서 초반 싸움에 큰 역할을 했다. 김선빈의 호수비와 실수에 천당과 지옥을 오간 헥터는 “야구 선수지만 항상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실수를 할 수도 있다. 실책 전에 좋은 호수비가 있었기 때문에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며 김선빈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목이 다 아프네=11일 와일드카드 결정전 2차전을 위해 밝은 표정으로 경기장에 출근한 KIA선수단. 환하게 웃으며 인사를 하던 투수 김광수가 “목이 다 아프다”며 엄살을 부렸다. 김광수는 “경기를 못 나가서 대신 열심히 응원을 했다. 목이 다 아프다”고 웃었다. 10일 KIA 덕아웃은 어느 때보다 응원 열기로 뜨거웠다.

▲오늘 이기고 내일 이야기 하시죠=

승리가 절실했던 4번 타자 나지완이었다. 나지완은 0-0으로 맞선 1차전 4회 1사 2루에서 2루타를 때리며 선취점을 발판을 놓았다. 그리고 2-0으로 앞선 6회에는 희생플라이로 귀한 타점도 올렸다. 나지완은 “무조건 주자를 불러들이겠다는 생각만 하면서 집중했다”며 “더 자세한 이야기는 오늘 이기고 나서 내일 하겠다”고 2차전 승리를 기원했다.

▲또 보게 되네요=11일 김기태 감독이 취재자에게 건넨 첫 인사는 “또 보게 되네요”였다. KIA가 5위로 와일드카드결정전에 진출한 만큼 KIA가 전날 패배 또는 무승부를 기록했다면 2차전이 열리지 않고 LG의 준플레이오프진출이 확정되는 상황이었다. 승리로 2차전까지 승부를 끌어온 김기태 감독은 “1차전을 앞두고는 잠을 잘 잤는데 어제는 잠이 안 왔다. 그래도 선수들이 재미있어 하더라”며 2차전을 앞둔 소감을 밝혔다.

▲또 붙여야겠네=11일 경기를 준비하면서 김광수 본드를 챙겨나온 선수가 있다. 투수 한승혁은 습진이 생긴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피장을 하면서 찢어져 고통을 하고 있다. 슬라이더를 던질 때 실합에 엄지손가락이 긁히면서 전날 연습 피칭에서는 출혈까지 발생했다. 결국 한승혁은 임시 처방으로 강력본드로 찢어진 부위를 고정하고 이날 훈련을 진행했다.

/잠실=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전설의 퇴장 “후배들에 등대 되겠다”

박세리 내일 인천 LPGA투어 1R 마치고 은퇴식

박세리(38·하나금융)는 한국 골프의 위대한 개척자다. 한국 골프는 박세리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 박세리 이전에 골프는 부자나 권력자들이 즐기는 고급 놀이였을 뿐 대중들에게 먼 세상이었다. 하지만 박세리가 1998년 US여자오픈에서 우승한 뒤 골프는 국민 스포츠의 반열에 올랐다. 골프를 몰라도 골프 중계를 시청하는 사람이 생겼다. 골프를 몰라도 딸에게 골프채를 쥐여주는 아버지가 많아졌다. 세계 여자 골프는 한국산 ‘세리 키즈’가 점령했다. 박세리는 한국을 넘어 아시아 전역에 골프 열풍을 불러일으켰다. 중국인 최초로 LPGA투어 메이저 챔피언에 오른 평산산과 태국인 첫 메이저대회 챔피언 에리아 쭈타누간 역시 크게 보면 ‘세리 키즈’의 일원이다. 이런 박세리가 필드를 떠난다. 박세리는 13일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열린 영종도 스카이72 KEB 하나은행챔피언십 1라운드를 마치고 은퇴식을 치른다. 박세리는 지난 7월 US여자오픈을 마지막으로 미국에서는 대회에 나서지 않았다. 사실상 은퇴 상태지만 은퇴 무대는 고국에서 열리는 대회를 선택했다. 초등학교 6학년 때 아버지 박준철 씨

중3 때 KLPGA 우승
고교 졸업반 댄 4승·상금왕
1997년 LGPA QS 수석
데뷔 첫해 메이저 2승 돌풍
통산 25승 한국인 최다승
LPGA 신인상·최저타수상
한국인 첫 명예의 전당에



은퇴식을 앞둔 박세리가 11일 오후 인천 영종도 스카이72 골프장에서 열린 기자 회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의 손에 이끌려 골프 인생을 시작한 박세리는 원래 육상 선수였다. 소년체전에 단거리와 중거리 선수로도 출전했다. 골프에 입문한 박세리는 금세 천재성을 드러냈다. 중학생 때 이미 ‘프로 잡는 아마추어’로 명성을 떨쳤다. 대전 갈매중 3학년이던 1992년 한국 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 라일 앤

결과는 수석 합격. 1998년 LPGA투어에 데뷔한 박세리는 5월 메이저대회 LPGA 챔피언십, 7월에는 US여자오픈을 연달아 제패했다. LPGA 투어에서 첫 우승과 두 번째 우승을 모두 메이저 대회로 장식한 선수는 박세리 전에는 없었다. US여자오픈에서는 워터 해저드에 볼이 빠지자 맨발 샷을 시도했다. 이 장면은 IMF 경제 위기에 시달리던 국민에게 희망의 메시지를 던졌다. LPGA 투어 신인상에 이어 2003년 최저타수상을 받았으며 1998년에는 AP통신 올해의 여자 선수에 선정됐다. 메이저대회 5승을 포함해 LPGA 투어에서 통산 25승을 거둬 한국인 최다승 기록을 가진 박세리는 2007년에는 한국 선수 최초로 LPGA 명예의 전당에 이름을 올리는 이경표도 세웠다. 박세리는 올해 은퇴를 앞두고 리우 올림픽에 여자부 감독으로 참가해 박인비(28·KB금융)의 금메달을 이끌었다. LPGA투어에서 이룬 업적과 맞먹는 역사적 쾌거였다. 떠나는 순간까지 역사를 만든 셈이다. 박세리는 이제 새로운 출발선에 섰다. 박세리는 “후배들에 등대 역할을 하고 싶다”고 자주 말했다. 걸어온 길만큼 남은 길 역시 위대하리라 기대한다. /연합뉴스